

판

KT노동조합과 조합원이 함께 만드는 '판'에서
즐겁게 일하는 조합원의 모습을 그려가는
소식지가 되고자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판

VOL. 4
KT노동조합 소식지



휴식, 그 이상의 가치

숨쉬기조차 버거운 폭염이 연일 계속되더니
어느새 그 기세도 한풀 꺾인 모양새입니다.

이번 여름도 이렇게 저물어가고,
짧지만 뜨거웠던 휴가를 끝내고 모두 각자의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휴식은 게으름도, 멈춤도 아닙니다.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같아서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하죠.

휴식은 쓸데없는 시간낭비가 아니라 곧 회복입니다.
짧았던 여름 휴가일지라도 회복의 힘은 그 이상이지 않을까요.

하나둘씩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지금
어제를 붙여넣기한 것 같은 오늘이라도
우리는 매일 조금씩 다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3대 집행부도 여름의 휴식을 자양분 삼아 조금 더 성장한 모습으로
조합원과 현장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Contents

KT노동조합 소식지 vol. 4



04 기획

고용쇼크가 말해주는
文정부의 경제성적표

06 특집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 제도 외

10 현장속으로

UCC 2018년도 글로벌 봉사활동

14 Inside 1

KT 우리가족 행복캠프

18 Inside 2

하계 휴양소에서 여름나기

20 KT, KT人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이후

22 Check-in

남북노동자, 축구로 평화시대
선포하다

24 Focus

폭염 속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26 [전문가 칼럼] 노동 이슈通

주 52시간제 시행 한 달
노동현장은 안녕한가?

28 카툰

근로시간 판단기준에 따른 Q&A

30 KTTU NEWS

KT 복지관 사이트 개편 외

34 독자후기 및 퀴즈

조합원 독자 후기 및 퀴즈
(독자 당첨자 안내)

판

'판'은 일이 벌어진 자리 또는 그 장면을 뜻하는 명사로, KT노동조합과 조합원이 함께 만드는 '판'에서
즐겁게 일하는 조합원의 모습을 그려가는 소식지가 되고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고용쇼크가 말해주는 文정부의 경제성적표



지난 1년 동안 수출액 5739억 달러로 역대 정부 최고치 경신, 그리고 외환보유액 역시 4024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 달성. 그럼에도 지난 7월 한 달 간 취업자 수는 모두 2708만3천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천여 명 증가한 것에 머물렀다. '7월 고용쇼크'로 점철된 정책실패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회의적인 여론이 많아지고 있다.

경제와 고용지표와의 큰 차이를 두고 한국개발연구원은 “높은 수출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소매판매 증가율 및 소비자심리지수가 낮아져 서비스업생산이 정체되는 모양새가 지속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말해 ‘수출이 견실한 반면 내수가 약화되어 전체적으로 불황이 이어진다’는 뜻이다. 내수부진은 다른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평균 75로 전월 대비 5포인트가 떨어졌다. BSI지수가 100 미만이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기업들이 말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제조업과 비제조업 분야 모두 내수부진과 인건비 상승을 가장 많이 뽑고 있다.

일자리 하나 살리는 데 1억 원 소요
내수부진, 고용약제에 신음하는 중소기업
정부는 고용창출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자리에 투입한 예산은 54조원에 달한다. 2017~2018년 본예산 36조 원에 더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14조8000억 원을 증액한 것으로 여기에 일자리안정자금 3조 원을 합친 액수다. 7월 취업자 증가 수와 투입된 예산을 단순 계산하면 일자리 1개 만드는 데 1억 원 넘는 예산이 소요된 셈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제조업 및 도소매업, 숙박, 임대서비스업 등에서 고용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직업별로는 판매종사

자, 단순노무종사자, 기능원(제빵 등 식품가공관련)의 고용자 수가 줄어들었다.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4% 감소한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2.3% 증가하는, 장시간 정규직이 줄고 단시간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띠고 있다. 이는 도소매 및 숙박, 판매 서비스업이 최저임금에 대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전형적인 내수업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말하자면 악화된 내수시장에 인건비 부담까지 더해지며 지금과 같은 7월 ‘고용쇼크’가 왔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자리 예산에 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중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줄이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다. 하지만 그 성과를 두고 재계에선 근로자의 임금을 정부가 직접 지불하는 것으로 ‘반시장적 조치’라는 비판이 많다.

중소기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업종별 쏠림현상이다. 2017년 총 수출액 5739억 달러 중 반도체는 단일 품목 처음으로 연간 수출액 9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전년대비 57.4%의 증가세를 보였다. 뒤이어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이 2, 3위를 기록했다.

학계에선 수출 증가 자체는 일종의 착시효과라 보는 견해가 많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그 중에서 특히 반도체 경기가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수출액도 덩달아 증가했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대기업이 활황세를 타는 반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황에 최저임금 이슈까지 겹쳐 고용에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소득에서 성장으로, 정부 정책 선회

고용감소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저소득층의 소득 하락으로 이어졌다.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소득은 128만6700원으로 1년 사이 8% 급감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소득은 1015만1700원으로 9.3%나 올라 빈부 격차가 그만큼 확대됐다. 투자 역시 예전만 못하고 있다. 기업의 설비투자



■ 문재인 정부 취업자 수 증가폭 추이(출처: 통계청)

율은 1분기 3.4%에서 2분기 -6.6%로 크게 감소했다. 2016년 1분기(-7.1%) 이후 2년 사이 가장 낮은 수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세미나를 통해 경제정책을 다소 선회했다.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부자 증세’ 대신 ‘서민 감세’로 소득 재분배의 방향타를 돌렸다. 정부는 이외에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핵심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콘텐츠 수출 종합대책 등도 규제완화에 포함될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는 2019년 예산에 기업의 메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집중 지원계획도 고려하고 있다.

‘포용과 성장’을 내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점이 있다.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지원, 노동자 서민들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 및 아동수당 신설 등은 분배와 복지 면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분배 뒤에 가려진 불황의 늪이다. 복지정책을 마무리하고 이젠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계와 재계에선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성장이 뒷받침된 후엔 혁신을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면서 기업을 향한 정부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높아진 복지 만족도만큼 기업활동을 보장해 성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다.

2018 하반기 노동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핵심은 노동시간 단축... 난임치료 휴가제도 등 신설

소득과 고용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장의 포용성'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성장을 중점 과제로 설정하면서도 공정한 경쟁사회 구축과 재분배 원칙의 중요성을 빼놓지 않고 강조했다. 성장의 포용성이 담긴 다양한 정책 중 노동자 서민들을 위한 새로운 민생정책을 짰다. 정부가 표방하는 노동존중 사회의 일환으로 이러한 기류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8년 하반기에도 많은 노동제도들이 변경 시행 될 예정이다.

노동시간 단축 및 특례 제외업종 축소

7월부터 변경된 노동제도의 핵심은 노동시간 단축이다.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 생활의 균형을 위해 노동자가 1주 근로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하여 52시간으로 제한됐다. 아울러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노동시간도 1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됐다. 다만, 노동자의 소득감소와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고려해 상시 노동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18년 7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18세 미

만의 연소노동자의 노동시간은 1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다. 노동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던 특례업종도 기존 26개에서 5개(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 육상운수업, 수상운수업,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로 축소돼 탄력적 근로시간제 수혜 범위가 확대됐다. 2주 또는 3개월 단위로 운영되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1주 최대 76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례업종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9월부터 반드시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효과를 볼 경우, 현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103만 명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자들의 주 평균 노동시간이 최소 6.9시간 감소하고, 14만~18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 52시간이 안착될 경우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면서도 산업재해는 크게 줄어드는 시너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난임치료 휴가제도 신설

2018년 5월 29일부터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의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신설됐다.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노동자(남·녀 노동자 모두 해당)는 휴가 시작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관련 서류(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다.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이며, 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 및 휴식기도 포함된다. 만일 사업주가 난임치료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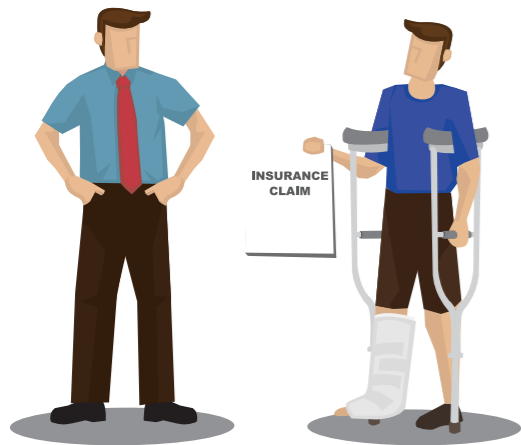
육아휴직 제도 강화

2018년 5월 29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 법 개정 전에는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에 출근율에서 제외됐으나,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이 개시된 경우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대해서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다만 사업장에서 1년을 초과해 부여하는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법 개정 이전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6개월 이상 근속한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게 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아빠의 육아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인센티브가 강화됐다. 7월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 노동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됐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

상시 노동자 1인 미만 사업장과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소규모 공사(2000만 원 미만의 공사 또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공사)의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7월부터 공사금액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상시 1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이제부터는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취약 노동자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기존에는 성장유망업종의 중소기업에서 청년(만18세~만34세) 노동자를 채용해야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이 지원됐지만,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6월부터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5인 이상의 모든 중소·중견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30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구인난 완화 위한 인력 지원 강화

노동시간 단축으로 생긴 여분의 시간을 역량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직업훈련 혜택도 주어진다. 현재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에게만 발급되는 '내일배움카드' 제도는 앞으로 300인 이상 기업을 다니지만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에게도 발급하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인력수요가 증가되는 운수 및 IT 업종의 직업훈련도 점차 확대된다. 노동시간을 단축한 사업장의 구인 수요는 별도로 중점 관리를 통해 일자리 매칭을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와 퇴직금 감소 예방 의무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라 노동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고,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부여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 설정 사업자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 등으로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노동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전환, 퇴직금 산정기준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위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가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외에도 7월부터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요건이 완화돼 육아휴직 등을 한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됐으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강화돼 연 1회, 1시간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대폭 강화돼 2년형에 추가로 6월부터 최대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3년형이 신설됐다.

기타 변경되는 주요 제도

서민부담 줄이는 건강보험 개편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 고소득, 고재산 가입자 보험료 적정 부담 -지역가입자 약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1%에 해당하는 2만2천 원 정도가 줄어들고, 고소득 피부양자 및 상위 1% 직장인 등에 속하는 84만여 세대에 대한 보험료율 인상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아동 충치 치료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11월부터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 적용

종합병원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기존 4인실 이상만 적용되었으나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초연금 인상 혜택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20만원 수준이었던 기초연금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인플루엔자 전파방지 및 아동 건강보호를 위해 무료접종 지원대상을 생후 6개월~12세 이하 어린이로 확대

자전거 음주운전자 범칙금 부과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시 범칙금 3만원 부과 및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부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부과, 승객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3만원 과태료 부과

UCC 2018년도 글로벌 봉사활동

선진 노사문화 확산과 사회공헌 위해
20개 기업이 참여한 노사협의체 UCC,
글로벌 봉사 위해 봉사단원 80명
베트남으로.



TV썩-AR BOOK 시연 / 그림치유



UCC 봉사단

따뜻한 IT 기술 등으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과 가족의 마음 위로... 7년째 베트남 봉사활동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베트남 신부의 얼굴이 긴장으로 상기됐다. 전 언론인이자 평창장애인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총감독을 맡은 바 있는 이문태 씨의 집례로 이루어진 네 쌍의 한국-베트남 다문화 가정의 한국 전통혼례가 거행된 이날, 네 명의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 여성은 집례자의 호명에 따라 절을 하거나 술잔을 주고 받았다. 전통혼례의 끝은 집례자의 성혼선포로 마무리된다. 마침내 식순이 모두 끝나고, 집례자와 양가 하객들의 축원덕담이 이어지자, 만감이 교차한 듯 두 볼에 연지를 붙인 신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베트남에서 부산으로 시집 온 응우옌티누 씨는 “결혼 5년만의 첫 친정방문을 남편과 아이들은 물론, 시댁 가족 모두 모시고 오게 되어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쁘다”면서 “더군다나 절차마다 각각의 의미를 갖춘 한국 전통혼례 방식으로 결혼식을 다시 올리게 되니 무척 감격스럽다”며 울먹였다.

이날 하노이에서 열린 한-베 다문화 가정의 한국전통

혼례는 KT노사가 주도하는 기업간 노사협의체인 UCC(Union Corporate Committee)가 펼치는 글로벌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UCC 봉사단은 지난 7월 15일(일)부터 7월 20일(금)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베트남 결혼이주여성 가족 화상상봉 및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22일(일)에 돌아왔다.

UCC의 글로벌 봉사활동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과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는 취지로 7년째 진행해왔다. UCC에는 KT와 분당서울대병원·한국농어촌공사·장애인고용공단 등 20개 기업 노사가 참여하고 있다. 1사 1봉사를 통한 참여회원의 책임시행을 바탕으로 노사평화 확산과 결속강화 및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추진된 UCC 글로벌 봉사활동은 한국-베트남 다문화 화 37가정을 선정, 현지에서 ▲화상상봉 ▲IT체험 ▲의료 무상진료 ▲한국 전통문화 체험 ▲현지가족 시내투어 ▲화합의 밤 음악회 ▲고아원 방문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여성가족부와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선정된 37가족이 전국 KT 지역본부 내 13개소 화상회의 시스

템과 베트남 하노이에 개설된 화상상봉장을 통해 가족 상봉의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올해는 다섯 쌍을 선정, 시댁 어른들 및 친지들을 직접 하노이로 초청, 한국식 전통혼례를 올려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첫날 화상상봉장을 찾은 부티 뚜엔 씨의 친정 아버지는 “한국으로 시집 간 딸 덕분에 정말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밝힌 뒤 “특히 한국 선생님들로부터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과 하노이 시내 투어가 정말 좋았다”며 활짝 웃었다. 이어 “이번 프로그램이 이렇게 알차고 재미있는 줄 알았다면 다른 친척들도 더 모시고 왔을 것을 그랬다”며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바람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서 KT와 UCC 회원사는 다양한 형태로 봉사 및 후원을 전개했다. KT는 우선 행사의 총괄을 맡으면서 아이들을 위한 기술존인, 사용자가 직접 실시간 TV썩에 출연하는 ‘TV썩’과 AR Book 체험, 드론, VR 등 KT의 첨단 ICT 기술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축구공을 선물했다. 축구공은 베트남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KT Wiz 프로야구팀과 수원 FC 프로축구팀이 공동으로 후원하여 마련한 것이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의료진을 직접 파견해 베트남 현지 가족들을 대상으로 무상진료와 의약품을 지원했으며,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헬멧과 우의를 선물로 준비하고 화상상봉장에 한국 식품전을 열어 현지 가족에게 전통 먹거리를 소개했다. 이 외에도 한국농어촌공사는 참여 가족들의 하노이 관광을 지원하고 한국남동발전은 웨딩촬영과 가족앨범제작을 맡았다.



의료진료



고아원 배식봉사



고아원 환경개선

**고엽제 후유 장애 고아원 찾아 환경개선 작업.
김해관 위원장도 팔 걷어 부치고 하루 종일 구슬땀
“전쟁 상흔도 함께 보듬고 싶다”**

UCC의 베트남 봉사활동 중 가장 고생스럽고 난이도 높은 활동은 단연 고아원 활동이다. 봉사단 중 고아원 ‘돌봄조’를 전담한 단원들은 일정 내내 하노이 외곽의 랑흥위(langhuunghi) 고아원을 찾아 고엽제 후유 장애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림 치유, 퍼즐 수업 등을 수행했다. 고아원은 전신마비 등 중증장애를 포함하여 전쟁의 상처인 고엽제 후유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동 120여 명 뿐 아니라 후유 장애 1세인 베트남 참전 어르신 60여 명이 생활하는 곳이다. 고엽제 후유증은 유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 수 많은 고엽제 후유증 2, 3세가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원 봉사단으로 뒤늦게 합류한 김해관 위원장은 7월 19일(목), 먼저 고아원 측에 기부금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후유 장애 아동 및 어르신, 고아원 직원 등 약 200여 명에게 한국음식을 배식한 뒤 이내 고아원 환경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환경개선 활동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고아원 전체 벽면에 폼블럭(압축 스티로폼 보드)을 붙이는 것. 습한 날씨에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는 와중에도 김 위원장과 봉사단은 아이들의 부상을 방지하고 고아원 전체를 밝게 꾸미는데 여념이 없었다.

김해관 위원장은 이날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6.25이후 우리나라의 고아시설을 지켜보고 자라서 그런지 여러 소회가 든다”면서 “전쟁이라는 비극이 평범한 개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안기는지 새삼 절감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김해관 위원장은 이어 “월남전쟁이 우리나라와 전혀 무관하지 않은 만큼 여력이 되는 한 매년 고아원을 찾아 봉사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전날인 18일(수)에는 고엽제 환우 어르신들을 상봉장으로 초청해 의료봉사도 진행했다.

**‘한-베 화합의 밤’ 음악회 개최
김해관 위원장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밑거름 될 것”**

글로벌 봉사활동이 끝나가는 19일(목)에는 250명의 베트남 다문화가족과 교민을 위한 음악회도 개최했다. 한-베 화합을 다지는 이 음악회에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이미연 공사도 함께했으며, 만찬과 함께 성악가 황영택, 가수 강원래, 소리새 등이 출연해 감동을 더했다. 김해관 위원장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은 이념과 국경을 초월해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 보편적 봉사정신의 의미를 새삼 떠올리게 됐다”고 밝힌 뒤 “더불어 살아가는 실천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독려했다.

김 위원장은 계속해서 “UCC 회원사 노사가 함께 마음을 모아 베트남 글로벌 봉사활동을 7년 동안 지속해 왔

다”며 “지속적인 우리의 활동이 현지인에게 호응을 얻는 등 양국간 민간관계에 신뢰를 쌓아가는 바탕이 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마음을 모아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을 밝혔다. 지난 7년간 환경, 여성, 장애인, 독거 어르신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온 UCC는

앞으로도 결혼이주 여성의 빠른 적응을 돕는 한편 한국 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로 양국 민간이 더욱 협력하고 연대하는 상생의 관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봉사할 계획이다.



ucc 글로벌 봉사후기

박화자 KT 대구고객본부 CS지원부 CS지원팀

UCC의 글로벌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은 기존에 해왔던 봉사활동을 좀 더 확장하고 싶어서였다. 가정 있는 여성이 일주일씩 시간을 내어 해외봉사를 다녀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의미 있는 여정이란 걸 알기에 선뜻 동참했다. 하노이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봉사자들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화상상봉팀, 현지 가족을 위한 투어팀, 의료봉사팀으로 나뉘어 미션을 수행했고, 나는 평소 가장 관심을 두었던 고엽제 후유 장애아들을 위한 돌봄반에 배정됐다.

하노이 외곽에 위치한 보육원에는 베트남전 때 살포된 고엽제 후유 장애를 겪는 아이들 120여 명이 생활하고 있었다. 상태에 따라 전신이 마비된 중증장애아부터 경증장애,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이들에게 다양한 증상의 아동이 있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만도 억울한데 부모에게마저 버림받은 아이들. 아이들이 아무 죄도 없이 받아야 했던 불운의 상처를 천분의 일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보육원에서 나는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퍼즐을 맞추면서 치유수업을 진행했다. 수업이 끝나면 봉사단이 준비한 한국음식으로 점심을 배식하고 식사를 마친 아이들이 낮잠에 빠져들면 이내 활동이 불편한 아이들을 위해 보육원 벽면에 폼블럭(압축 스티로폼 보드)공사를 했다. 같이 그림치유 수업을 하고 함께 놀아주고 밥을 먹이는 그 대수롭지 않은 일이 뭐라고, 일과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려 하면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입을 맞추고 포옹을 하며 헤어짐을 아쉬워했다.

내 목을 꼭 끌어안고 얼굴을 마주 대는 아이의 몸짓에 내 콧잔등이 시큰해진다. 내 한 몸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와 고아라는 굴레에도 함박웃음을 보여주던 아이들의 천진함에 매 순간 치유 받는 느낌이었다. 날 선 비난과 양육강식만 있는 정글 같은 세상사라지만 살아간다는 것은 순환을 통해 질서를 잡는 자연처럼 서로 공생하는 것이다. 세상은 알게 모르게 서로 연관 맺고 수많은 타인과 내가 영향을 주고 받으며 굴러간다. 동네, 나라, 지구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봉사를 통해 건강한 가치관과 행복한 세상을 위해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내 자신의 성장을 보는 것은 덤이다. 이렇게 자명한 긍정적 영향을 이번 UCC 봉사료 새삼 깨닫고 있는 중이다.

나눔과 봉사에 관심이 있어도 진입방법을 몰라 망설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일단 한번 시작해 본다면 어려울 것이 없다. ‘더불어 함께 살맛 나는 세상’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질이나 화려한 입담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고요하지만 힘 있게 실천하는 타자에 대한 배려와 책임의식이야말로 진정한 사회변혁의 원동력이다. 내 자신의 정서적 포만을 위해, 이 세상 누구라도 소외된 고통 속을 고단하게 유랑하지 않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KT가족의 한여름 추억 만들기

자녀와 함께하는 '2018 KT 우리가족 행복캠프'

설렘으로 가득한 54가족의 연수원 입성

오전 10시 반, 일찌감치 캠프에 입소한 가족들이 주최 측에서 마련한 일체복을 입고 속속 대강당으로 모여 들었다. 자리에 앉는 가족들의 표정이 아직 어색하지만 무언가 기대에 가득 차있다.

개회식이 시작되고, KT그룹인력개발원 인재육성담당 양병채 상무보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엄마 아빠의 회사가 좋은 회사로 자연스럽게 인식되기를 바란다”며

KT그룹인력개발원 원주연수원에서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KT 우리가족 행복캠프'가 실시됐다. 단조로운 도심의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이 함께 음식을 만들고, 물놀이를 즐기며, 밤하늘의 별을 보기까지. 시간이 갈수록 KT 가족들의 웃음도 커져가던, 1박2일의 추억 속으로 들어가 본다.

“고민해서 열심히 준비한 만큼 가족들에게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인사말을 전달했다. 이어 KT노동조합 홍정성 정책3국장 또한 인사말을 통해 “조합원과 자녀분들이 1박2일 동안 즐겁게 행사를 만끽하고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았으면 한다”며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올해 실시하는 이 가족캠프도 잘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캠프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원했다.

스텝과 전체일정에 대한 소개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가족들은 오전 11시, 곧바로 식당으로 이동해 드디어 첫 번째 프로그램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함께하는 즐거움, 즐거운 하나되기

이번 가족 캠프는 ‘즐거운 하나되기’, ‘서로 마주하기’, ‘행복한 기억 남기기’ 등 세 가지 테마로 나누어 진행됐다.

첫 번째 순서는 ‘Happy Meal’ 만들기. 케밥, 월남쌈, 샌드위치 중 좋아하는 한 가지 메뉴를 정해 직접 만들고 함께 나누어 먹는 시간이다.

다함께 “우리가족! 최고야!”를 외친 가족들은 서로서로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가 하면, 간단한 가위바위보 게임으로 분위기를 푼 다음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모자와 앞치마를 착용한 가족들은 테이블에 놓인 레시피에 따라 신선한 채소와 과일, 고기를 넣고 푹푹 말아가며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다. 난생 처음 만들어보는 월남쌈과 케밥, 손놀림은

투박하고 서툴러도 함께이기에 그 맛만은 일품이었다. 진행 중에는 깜짝 이벤트도 열렸다. 8월에 생일을 맞은 자녀를 위해 축하 순서가 진행됐고 아이들은 생일 축하 노래와 케이크를 깜짝 선물로 받았다.

1시간여의 프로그램 후 가족들은 마침 말복을 맞아 준비된 삼계탕으로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일정을 맞이했다. 오후 1시부터는 ‘모두의 운동회’라는 주제로 KT 알기 퀴즈대회, 미션 레이스, 드론 레이싱이 세 시간 동안 차례로 펼쳐졌다.

가족을 서로 이해하는 명랑운동회

도전 골든벨 형식으로 치러진 퀴즈대회는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다니는 회사에 대해 알아가고, 부모는 신조어 맞추기를 통해 자녀세대를 공감해보는 순서다.

KT 로고 맞추기, 5G캠페인 광고모델 맞추기, 야구단과 음악 스트리밍 앱 이름 맞추기 등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15개의 알쏭달쏭한 퀴즈가 자녀들에게 던져진 데 반해, 부모들은 ‘마상’, ‘댕댕이’, ‘세젤예’, ‘번달번썰’ 등 자녀가 사용하는 10개의 신조어를 맞추느라 애를 먹었다.

이어 또 하나의 명랑 운동회는 곳곳에 마련된 추억의 놀이를 즐기는 순서로 ‘단체 줄넘기’, ‘종이수염 떼기’, ‘탁구공 옮기기’, ‘단체 제기차기’, ‘딱지치기’ 등의 미션들을 팀별로 빠르게 수행하는 게임이다. 아이들에게는 새롭고 부모에게도 어린 시절 추억이 되는 레이스를 펼치면서 모두가 시간가는 줄 모르고 푹 빠져들었다.

한편 체육관에서는 드론 레이싱이 시작됐다. 아이들은 드론 조작법을 배우고 직접 운전해보며 예선 레이싱을 치른 후,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레이싱 본선을 열었다. 예선에서 올라온 다섯 팀 중 최종 세 팀의 대표선수가 결승을 했는데, 드론 이착륙과 지그재그로 코트를 완주하고 좁은 장애물을 통과하는 등 경기를 침착하게 수행하는 아이들의 파이팅에 가족들은 모두 아낌없는 응원과 박수를 보냈다.

신나게 땀 흘린 모두를 위해 오후 4시부터는 야외 물놀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아빠는 잔디밭에 마련된 수영장에서 물총싸움을 하고 워터 미끄럼틀도 타면서 뜨거운 여름 더위를 한껏 즐겼다.





특별한 원주의 밤

7시30분부터는 특별한 원주여행이 기다리고 있었다. 본관 앞에 대기한 대형버스 두 대에 몸을 실은 아이들은 부모님의 배웅을 받으며 오코밸리 천문대를 향해 그들만의 별밤 여행을 떠났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여름 별자리와 성단이 밤하늘에 펼쳐진 것이 마냥 신기한 아이들은 강의를 듣고 천체망원경으로 달과 행성을 관측하는가 하면, 마침 그 날은 화성, 목성, 토성을 육안으로 볼 수 있어서 더 특별하고 유익한 경험이 됐다.

그 사이 부모들은 '가족의 의미 재발견, 상처와 치유'라는 주제로 한세대 가족상담학 최광현 교수의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제 곧 사춘기에 접어드는 자녀와의 관계를 위해 꼭 필요한 '소통'의 중요성과 '소통의 능력'은 상처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강의에 공감하면서 고민을 상담하는 시간도 가졌다.

마지막 날이기도 한 다음날 아침은 아침식사 후 연수원 인근을 자유로이 산책하고 치악산의 신선한 정기를 만끽하는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다. 자녀와 손을 잡고 고요한 산책로를 따라 텃밭과 다양한 수종들을 관찰하고 숲속 도서관에서 엽서를 쓰는가 하면, 골프장에서 나란히 샷을 날리기도 했다.

캠프의 마지막 프로그램은 '행복기억 남기기'다. 가족들은 이곳에서의 즐거웠던 시간들을 정리해 가족팻말

을 만들고, 또 각자의 모습이 그려진 캐리커처에 색을 입히며 마음을 써내려갔다.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자", "건강 지혜 담대" 등 추억과 가훈이 알록달록 새겨진 명패를 들고 서로에게 소개하며 추억을 다지는 것으로 가족 캠프의 시간은 막바지를 향했다.

오전 11시30분, 2018 KT 우리가족 행복캠프의 폐회식이 진행됐다. 아쉬움 속에 가족들은 수고한 스태프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인사를 건넸고, 가족 모두에게는 드론을 비롯한 꾸민 선물도 전달됐다. 이후 캠프에 참가한 가족 이하 스태프 모두는 야외에서 단체사진촬영을 끝으로 '2018 KT 우리가족 행복캠프'의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무리했다.



**[서비스연구소지부]
이관열 조합원 & 자녀 이연주 양**

천안에서 매일 회사로 출퇴근하는 이관열 조합원은 그 래도 스스로를 최선을 다하는 아빠라 자부한다. 하지만 이번 캠프를 통해 느낀 게 많다. "사실 아이들하고 나름 잘 놀아준다고 생각했는데 캠프에 참가해보니 '아! 아이들이 아빠와의 시간을 더 원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침에 산책하면서 다른 가족에게 엽서도 보내고, 부스 안에 참새가 갇힌 걸 보고는 연주가 날려 보내주기도 했죠." 특히 이번 캠프는 둘째인 연주만 데리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게 아빠에게는 더 특별하다. 가족 모두가 여행하거나 첫째인 오빠에게 집중되는 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미쳤을 둘째에 대한 관심을 이번에는 온전히 연주에게 쏟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것이 뜻깊고 즐거웠다고. 가족끼리 여행은 자주 가 봤는데 이렇게 아빠와 둘만 가기는 처음이에요. 특히, 물놀이 때 아빠한테 물 뿌리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근데 아빠와 천문대에 가지 못한 게 아쉬워요. 아빠에게도 별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또 '엄마도 캠프에 같이 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짧은 시간이 아쉽기도 하지만 방학 기간에 참가할 수 있어 더 좋았다는 이 조합원은 무엇보다, 아이에게 좋은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케 하면서 아빠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안겨줄 수 있어 부듯하다. 또 이번 캠프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된 만큼 우리가족 행복캠프가 조합원들을 위해 더 발전하는 행복 캠프가 되기를 희망한다.

**[창원지부 C&R팀]
권지선 조합원 & 자녀 이경훈 군**

16~17일이 휴가기간이었다는 권 조합원은 별 계획 없이 그저 아이들을 돌보며 집에서 보내려고 했었다. "마침 휴가기간이라 신청했는데 운 좋게도 선정됐어요. 행운이었죠. 게다가 경훈이가 16일이 생일이었는데, 깜짝 이벤트도 해주셔서 감동적이었고 정말 뜻 깊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의미 있었다. "미션 수행하는 게임도 부모와 아이가 같이 하니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았고 아이도 좋아했어요. 잔디밭에 수영장을 만들어 준 것도 좋았고, 숙소도 편했습니다. 경훈이가 이번 여름에 워터파크 가자고 했었는데, 이번 캠프에서 소원을 풀었네요." 경훈이는 특히 수영장에서의 시간이 제일 좋았다.

"수영하고 노는 거랑, 추억의 놀이, 별 관찰하는 거 다 재미있었어요. 드론은 운전이 손에 익지 않아서 그냥 직진만 했어요. 수영장에서 사귀 친구들과 물총 쏘고 장난치며 놀던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권 조합원은 1박2일이라는 기간이 여운을 남길 수 있어 더 알차다고. 즐거웠던 기억만을 안고 가는 만큼 회사와 노동조합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첫 해인 만큼 1박2일이 딱 좋은 거 같아요. 원주라는 위치가 좀 멀게 느껴지는 하지만 3시간30분 운전이 힘들지는 않았어요. 출장처리로 부담 없이 올 수 있었고 모든 면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불편함 없이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폭염 속 휴가, 하계 휴양소에서 여름나기

기록적인 폭염으로 유난히도 더웠던 이번 여름은 해외나 휴가지로 떠나지 않고 도심 호텔에 머물며 휴양을 즐기는 피서객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대세를 따라 2018년 하계 휴양소는 호캉스가 가능한 도심 속 호텔부터 각자의 휴가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시설이 선정되었다. 지금부터 2018 하계 휴양소를 직접 이용한 조합원들의 생생한 후기를 공개한다.

신라스테이 해운대

이진근 조합원 | 대구고객본부 Biz컨설팅센터 미래융합컨설팅팀

이번 여름 휴가는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부산에 있는 휴양소 중 신라스테이 해운대에 묵었는데, 숙소가 쾌적하고 바닷가가 보이는 뷰라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깊은 물에서 놀기에는 위험 요소가 많은데 호텔 앞 해운대는 어린이들이 놀기에 적당한 물의 깊이였고, 해변에서 모래 놀이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참 좋아했죠. 또한 근처 산책로도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어 저녁 시간에 가족이 함께 산책하기에 좋았고, 마침 요소요소에서 다양한 공연을 하고 있어 볼거리가 많았던 여행이 되었습니다. 해운대와 광안리의 야경이 아름다워 아이들에게도 좋은 기억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특히, 주변 상권이 발달해 있어 숙소 근처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좋았고, 해수욕을 하고 난 뒤 수영복 등을 호텔 내 코인 세탁기를 활용해 빨래 및 건조를 할 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신라스테이 해운대를 향후 이용할 계획이 있는 조합원이라면, 제가 갔던 맛집 몇 군데를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BIKINI GRILL은 스테이크와 파스타가 맛있었던 집으로 아이와 함께 먹기에 좋았고, 속씨원한 대구탕은 해장국으로 제가 매우 만족했던 곳입니다. 추가로 호텔 내에 (아이스크림 전문점)백미당이 입점해 있어 아이들 간식으로 이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요즘은 호캉스가 대세라고 하죠. 내년에도 호텔 내에서 휴식과 물놀이, 먹거리 등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호캉스가 가능한 휴양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하계 휴양소를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조합원들이 더욱 다양한 경험을 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휴양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크우드프리미어 인천

곽수정 조합원 | 서부고객본부 사업지원부 영업지원팀

이번에 운 좋게 하계 휴양소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천 송도의 오크우드프리미어인천 호텔을 이용하게 됐는데, 하루는 팀 직원들과 또 하루는 친구와 함께 도심 속 휴가를 즐겼습니다. 첫 날은 입소해서 밤 늦게까지 먹고 마시며 수다 삼매경에 빠지고, 호텔 측에서 투 베드룸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줘 58층 객실 통유리로 송도의 야경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 멋진 야경을 동료들과 함께 즐길 수 있어서 그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 날은 호텔 피트니스에서 서해바다를 바라보며 운동도 하고 친구와 송도 맛집을 찾아 점심도 먹고 카페 순례도 하는 여유롭고 럭셔리한 휴가를 보냈습니다. 조금 덜 더웠다면 송도의 랜드마크인 센트럴파크도 거니는 여유를 부려보았을 텐데 이번엔 너무 더워서 호텔 창 안에서 서만 보고 즐기만 했어요. 그럼에도 전혀 지루할 틈이 없는 게 호캉스의 묘미죠. 송도신도시 끝자락 빌딩 52층을 로비로 사용하는 이 호텔은 객실 안에 주방이 딸린 레지던스 호텔이라 조리기가 웬만한 집만큼 구비되어 있어 간단한 요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휴가 와서 무슨 요리냐 하는 분들은 바로 옆 롯데마트에서 먹거리를 살 수 있고요. 이도 저도 다 귀찮은 분들은 도심 속 호텔이기에 배달앱이나 근처 배달 가능한 식당에서 전화 한 통으로 간단히 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호텔 이용 첫 날은 휴가를 내지 못해 퇴근 후부터 이용했는데, 이것이 도심 속 휴양소의 가장 큰 장점인 듯합니다. 몇 시간이나 떨어진 산이나 바닷가에만 있던 하계 휴양소가 근래 들어 서울이나 인천 등 대도시 안에 생기는 컨트렌드에 맞는 바람직한 변화인 것 같아요. 특히, 24시간 무인 운영 피트니스 클럽이 있다는 점이 좋았고, 이번 여름같이 39도를 육박하는 폭염 속에 전기료 걱정 않고 에어컨을 맘대로 틀며 여유를 부리는 건 특급호텔에서만 누릴 수 있는 사치 아닐까요? 내년에도 서울 도심의 휴양소를 기대하고 있고,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어르신들도 더운 여름날 먼 곳까지 고생하며 가는 것보다 도심 특급호텔에서 가족과 함께 여유롭게 보내는 휴가를 더 좋아하실 듯 합니다.





지난 6월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담긴 방송법 제8조의 효력이 자연 상실됐다. 하지만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찬반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다시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일몰 연장 발의로 뜨거워진 찬반논쟁

최근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 7월 1일 정의당 소속 추혜선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석의 의원은 일몰된 합산규제를 2~3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찬반을 놓고 사회적 공방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SO,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방송법 제8조와 그 하위법인 IPTV법 제13조에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KT가 IPTV 사업인 '올레TV'를 론칭하고 위성방송사업인 '스카이라이프'를 인수한 후 사회 일각으로부터 독과점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난 2015년 제정됐다. 일반 법령과 마찬가지로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3년 동안의 한시적 규제가 지나면 법적 시효가 자동 소멸되는 일몰원칙이 적용됐다. 당시 3년 동안의 시효를 정한 이유는 향후 방송법과 IPTV법 등을 합치는 '통합방송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합산규제 방안도 자연

스럽게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6·13 지방선거 등 대형 정치 행사를 치르면서 논의 주체인 국회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재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KT는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 수 957만 명으로 국내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KT와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합친 것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31만 명이 증가했으나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비중은 30.54%로 유료방송 합산규제 상한선을 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KT를 위시해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 여부를 놓고 작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10명의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위원회가 해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되면서 통합방송법 안에 합산규제를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킬 계획을 밝혔다. 이 조항이 합산규제 일몰 후 통과하게 되면 그 사이에 통신사들이 인수합병이나 마케팅을 통해 33.3%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또

한 IPTV 가입자가 늘어난 후 통합방송법이 통과될 경우 가입자 해지를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케이블 TV 업체는 이 조항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만 존재하는 반시장 규제 vs 방송시장 과점 우려

KT를 비롯 일몰 찬성 측에서는 합산규제가 국회에서 처음 합의했던 그대로 시행 기간이 끝났으면 당연히 종료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해 방송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콘텐츠 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방송 사업자 간의 인수합병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한국처럼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시행되는 국가는 거의 없으며 한국에만 존재하는 반시장 규제라고 입을 모은다. 미국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30%로 제한하려고 시도한 적은 있지만 끝내 무산되었고, 프랑스, 헝가리, 네덜란드, 폴란드, 호주 등에서도 동일 사업자가 복수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찬성 측 입장에서는 합산규제가 여전히 반시장적인 제도이며 시대를 역행하는 법이라 간주하고 있다. KT는 합산규제가 유료방송 사업자간 자율적인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이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4차산업 혁명시대이자 융합시대를 맞아 경쟁을 통해 시장을 성장시키는 것은 시장의 건강함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KT를 제외한 SK브로드밴드, LGU+를 비롯해 CJ헬로, 디라이브, 티브로드 등 케이블TV 및 IPTV 사업자들은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될 경우 현재 유료방송 가입자 수 1위인 KT의 시장영향력이 더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합산규제 일몰로 독과점 사업자가 등장하면 투자와 서비스 경쟁이 사라지고 케이블TV가 담당해온 방송의 지역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로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을 반대하고 있다. 합산규제가 일몰되지 않아도 방송사업자 간의 인수 합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수합병 방송시장의 유연성은 얼마든지 확보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MINI INTERVIEW
미니 인터뷰

CR기획실
미디어정책담당
미디어정책팀
남동욱 차장

Q. 지난 6월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합산규제는 사업자간 경쟁 제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 시장 내 KT群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한 경쟁사 등 반KT 진영의 강력한 공세로 2015년 도입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KT는 반KT 진영과의 1대 N 대립구도로 인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합산규제 일몰을 이루어 냈습니다. 합산규제는 케이블TV와의 공정경쟁 저해 및 방송의 다양성 훼손 방지 등 그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해외 주요국에도 규제 사례가 전무한 상황으로 일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Q.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연장에 대한 움직임이 감지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KT의 전략 및 향후 진행 방향이 궁금합니다.

지난 6월 27일 합산규제 일몰 이후 국회 일부에서 일정기간 합산규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KT는 규제혁신을 통한 산업진흥, SO와의 상생협력, 방송 콘텐츠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통해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고 합산규제 찬성 입장 이해관계자를 적극 설득하는 등 대응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IPTV는 KT가 차세대미디어 플랫폼을 선도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서비스이지만 '유료방송 1위 사업자'에 대한 견제 심화, OTT서비스 등 미디어 소비 트렌드 변화 등 여러 가지 위협도 동시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KT 미디어사업이 지속 성장하여, 훌륭한 플랫폼 비즈니스로 자리매김하는데 우호적 정책규제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북 노동자, 축구로 평화시대 선포하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 개최

4·27선언 이후 첫 남북 민간행사인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가 8월 11일 오후4시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다. 무더위의 열기 속에 함께 뛰고 땀 흘린 남과 북의 노동자들은 이날 승패를 떠나 한 마음으로 진한 동포애를 나눴다.



37도의 폭염 속, 환호와 함성이 가득한 경기장으로 한반도기를 앞세운 남북 선수단이 손을 맞잡고 입장했다.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가지는 첫 민간 교류 대규모 행사인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의 시작이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조선직총(조선직업총동맹) 남북 3개 노동단체가 주관한 이 대회는 64명의 북측 선수단과 대표단이 육로로 서울에 도착한 지난 10일 공동기자 회견으로 시작됐고, 이날 본행사로 남북 노동자 축구경기를 치렀다.

경기에 앞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노동자의 삶을 위해 남북 노동자

의 연대와 단합을 더욱 적극화해야 한다”고 말했고, 주영길 조선직총 위원장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 통일의 시대가 열렸음을 엄숙히 선포한 판문점선언이 오늘의 성대한 자리를 마련해줬다”고 했다.

노동자가 앞장 선 통일운동의 산물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는 지난 20년간 군사적 긴장감 속에서도 맥을 이어왔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8월 14일 평양에서 처음 시작해 2007년 경남 창원 대회, 2015년 평양 대회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2016년과 2017년에도 개최를 시도

했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열리지 못한 만큼, 이번 대회는 북한 노동단체가 무려 11년 만에 남한을 방문하는 친선의 장이다.

1999년에는 서해교전으로 무산 위기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첫 대회가 성사됐고, 2007년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남측을 찾았다. 2015년에 목함지뢰 사건으로 긴장감이 극에 달했을 때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함께 연을 이어왔다.

이후 90년대 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변하면서 한반도 통일문제를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해결하자는 북측의 제안이 있었고, 체육과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99년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를 통해 공식적인 노동자 교류가 시작됐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을 계승한 평화통일의 새로운 이정표라는 4·27 판문점선언에서는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자’고 합의한 바 있다.

남북 노동자단체는 올해 6.15공동선언 발표 18주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통해 “이 땅의 항구적 평화와 자주통일의 실현을 위해 노동자들이 당당히 앞장서 나갈 것”이며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 민족 자주의 원칙아래 모든 활동을 진행하며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단호히 비격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판문점선언의 중단 없는 이행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이번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는 무엇보다 평화 통일의 시대를 여는 마중물 성격을 띠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노동자들이 앞장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 또 이를 넘어서 온 겨레가 한마음으로 참여하는 축제와 단합의 무대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한편 양대 노총 조합원과 시민 등 3만여 명은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면서 이번 대회가 통일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했다.

관중석에서는 통일 축구 서울 시민 서포터즈가 ‘우리는 하나다’ 구호를 외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익숙한 북측 가요인 ‘반갑습니다’ 등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남



과 북 구분 없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선수들을 응원했다. 또 경기장 곳곳에는 대형 한반도기를 비롯해 ‘4.27 판문점 선언 이행’, ‘개성공단 재개’ 등의 문구가 적힌 펠침막이 내걸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축사에서 “오늘은 축구로 만났지만 내일은 남북 노동자가 함께 땀 흘려 일하고 마주앉아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남과 북은 열띤 응원 속에 두 경기를 치렀다. 홍광효 조선직총 통일부위원장, 서종수 한국노총 서울본부 의장,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의 공동 사회로 진행된 이날 경기는 한국노총(넥센 외 4개연합팀)-조선직총 건설노동자팀, 민주노총(기아차 외 4개 연합팀)-조선직총 경공업노동자팀으로 나뉘어 한 경기당 30분씩 진행됐고, 선수들의 개인기와 골이 터질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결과는 첫 번째 경기 1:3, 두 번째 경기 0:2로 두 경기 모두 조선직총 선수들이 승리했다.

경기가 끝난 후 선수들은 한반도기를 들고 경기장을 함께 돌며 관중들에게 인사했고 이로써 역사적인 서울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가 막을 내렸다.

이어 북측 대표단은 숙소인 서울 워커히호텔에서 환송 만찬에 참석했고, 다음날인 12일 경기도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을 찾아 전태일 열사와 이소선 여사, 문익환 목사 묘소를 참배 후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귀국함으로써 방한 일정을 마무리했다.



전기요금

누진제완화

가구당 19.5% 할인

kwh



도시 전체를 삼킬 것만 같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여름, 정부에선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한시적 완화조치를 단행했다. 서민과 노동자 대중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가구당 평균 19.5%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누진제 1~2단계 각 100kWh씩 상향, 2761억 원 절감

정부가 전기요금 경감조치를 발표한 것은 지난 8월 7일이였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 브리핑’에서 지난 7~8월 2개월 동안의 전기요금 누진제의 한시적 완화를 통해 2761억 원의 전기요금을 경감하기로 발표했다. 이는 가구당 평균 19.5%에 달하는 수치로 역대 정부의 전기요금 경감 사례 중 가장 실효성이 높은 조치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의 요금을 부과 적용하고 있다. 2구간(201~400kWh)이면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일 때는 280.6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가 단행한 누진제 완화는 3단계인 누진구간 중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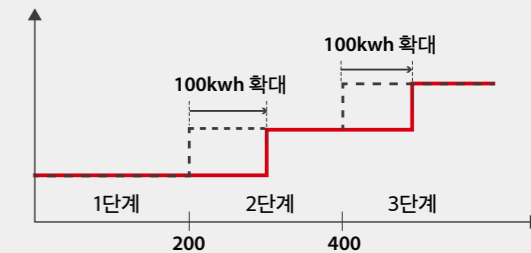
서 1~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상향 조정됐으며, 2단계 구간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100kWh씩 조정된다. 각 구간별 상한선을 높임으로써 평소보다 100kWh 정도의 전기를 더 사용하더라도 상위 구간으로의 이동 확률이 낮아져 누진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전기요금 경감 조치로 200~400kWh 부근 사용 가구집단이 가장 많은 전기요금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배려계층 위한 냉방지원 확대

정부는 누진제 경감조치와 별도로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냉방 지원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30% 확대시

■ 주택용 전기요금 한시적 부담 완화

구간	현재	조정
1	200kwh 이하	300kwh 이하
2	201~400kwh	301~500kwh
3	401kwh 초과	501kwh 초과



켰다. 또한 출생 1년 이하 영아에 국한되던 냉방복지 지원대상을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도 포함시켜 모두 46만 가구가 매해 250억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전기요금 지원대책은 단순히 요금 인하라는 일시적인 효과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시해 재난안전법 개정 및 재해 대책 예비비를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강구한 것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매해 여름철 폭염을 대비해 사상 최고 수준인 7.4%(681만kWh)에 달하는 전력 예비율을 유지하는 등 차질 없는 전력 공급 태세를 갖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력수요에 대처하는 전 세계 요금 정책

우리나라는 산업용 및 농업용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아 전기요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누진제가 적용되는 가정용은 한여름 폭염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전기요금 폭탄을 맞기 일쑤다. 누진제를 통한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요금의 차등 적용은 애초 전기절약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전력소비를 근본적으로 줄이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11년 9월에 발생한 수도권 대규모 정전 사태가 우리나라 전력 공급 시스템의 맹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외국에선 대규모 전력대란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보다 실효적인 에너지정책을 펴고 있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전기요금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다. 하지만 누진요금에서 큰 차이가 난다. 1~5단계로 나뉜 누진구간의 차이는 2.4배로 우리나라의 11배보다 5배 가

까이 저렴하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달리 가정용처럼 산업용이나 농업용에도 똑같이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전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부터 ‘에너지 총량제’를 도입해 전력 소비 줄이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전혀 없다. 그렇다고 전력을 헤프게 쓰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전력 낭비를 막기 위해 영국은 2020년까지 전체전력소비량의 31%를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프랑스는 전력요금에 우리나라보다 비싸지만 유럽 전체에 비해선 저렴한 편이다. 프랑스는 전력사용이 많은 여름철과 겨울철 공공건물에 대해 여름철 적정 온도는 섭씨 26도, 겨울철엔 19도로 정해 이를 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위반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1천500유로(한화 200여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본은 1974년 누진제를 도입한 이후 거의 변화 없이 이를 유지하고 있다. 최고 단계 전력소비량에 대해 도입 당시 200kWh에서 4단계를 거쳐 2000년 300kWh로 비중을 늘린 것이 유일한 변화다. 지난 2012년 가정용 전기요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산업용을 20% 대폭 인상한 이후 기업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해 우려했던 전기요금 폭탄은 피했지만, 여름철 폭염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누진제 폐지 등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향후 요금 체계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신재생에너지로의 전력생산구조 전환이라는 장기정책 목표와 맞물려 정부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매일노동뉴스 논설위원 박성국

주 52시간제 시행 한 달, 노동현장은 안녕한가?

대기업·공공기관 주도 업무방식 개선... 임금감소 보전 없고 유연근무만 확산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실제로는 단축이 아니라 법정노동시간 정상화로 보는 게 정확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며, 노사 합의에 따라 12시간의 특별연장노동이 가능하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1주를 5일로 해석한 탓에 주 68시간 장시간 근무가 관행화됐다. 지난 2월 국회는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로잡았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적용됐다.

단, 정부는 올해 말까지 대상 기업들의 주 52시간제 도입을 계도하는 기간으로 설정하되,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경영계 입장에서는 올해 말까지 시간을 번 셈이다. 그래도 주 52시간 근무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법정노동시간이 정상화됨에 따라 사업장에서 일하는 풍경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민간대기업·공공기관 주도 '주 52시간제'

3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집중근무제·유연근무제를 채택하면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최근 한국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기업 83곳 중 54.2%가 유연근무제, 43.4%가 집중근무제를 주 52시간 근무제 대책으로 선호했다.

전자업계의 쌍두마차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했다. 유연근무제의 일환인 자율출퇴근제·선택적 노동시간제를 활용해 주 40시간 근무를 유도하되, 야근과 휴일근무를 줄이는 방향이다. SK하이닉스도 개발·사무직에 한 해 선택적 노동시간제를 도입하되 교대직의 경우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업계에선 유연근무제·PC오프제·연장근로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KT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9to6(good job)'를 실행하고 있다. SK텔레콤은 2주 단위로 최대 80시간 범위 내에서 노동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선택적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6년 8월부터 시차출퇴근제를 시

행해 온 LG유플러스는 매월 둘째·셋째 주에 집중근무제를 실시해 오후 5시에 퇴근하도록 했다.

한편 넷마블·네이버(NHN)·다음카카오·넥센 등 포털·게임업체도 집중 노동시간 외에는 출퇴근을 자유롭게 정하는 선택적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공공기관 '평일 연장근로 축소' 선호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공표했지만 일선 노동현장에선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기술 업계의 경우 PC오프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연장근로를 원천적으로 제한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기업들이 부서장에게 신청하지 않은 연장근로를 금지하지만 업무가 몰리는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태는 한국노총이 조사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20일부터 27일까지 산하 26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 노동시간 단축법 시행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 138곳과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129곳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267곳 중 152곳(56.9%)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했지만 115곳(43.1%)은 노동시간을 단축하지 않았다. 특히 300인 사업장 중 47곳(40.9%)이 노동시간을 단축하지 않았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 조사대상 사업장의 31.5%가 휴일근무일수 및 휴일노동시간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 다음은 평일 연장근로 축소(31.1%), 작업방식 개선(9.2%), 휴게시간 확대 및 변경(7.9%) 순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평일 연장노동시간 축소(34.7%)를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꼽았다.



또한 조사대상 사업장의 절반이 유연근무제를 채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노동시간단축으로 인한 임금감소(53.2%)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58.5%,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1.5%가 임금감소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임금감소에 따른 보전 조치가 이뤄지는 사업장 중에서 단 7곳만이 전액을 보전했다. 또한 추가고용·채용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102곳(38.2%)의 사업장이 긍정적 답변을 했다.

실 노동시간 단축, 삶의 질 향상 중요

한국노총의 조사 결과는 주 52시간제가 노동현장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채 겉돌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경영계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범위를 넓히고, 탄력근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근로법 53조(연장근로의 제한)에 따라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법에는 자연재난·질병확산·전력 및 통신기능 마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특별연장근로

가 가능하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3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해 정부는 특별연장근로와 탄력근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 52시간제 시행을 유예한 데 이어 이러한 조치까지 검토하더니 개탄할 노릇이다. 정부가 노동시간을 단축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정부부터 중심을 잡아야 한다. 노동시간을 단축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고, 탄력근로·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면 된다는 식의 왜곡된 신호를 보내선 안 된다. 일자리 창출은커녕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도 요원해진다. 주 52시간제는 실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기업들이 PC오프제, 유연근무제, 평일 연장근로 제한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개선조치에 불과하다. 초과근로 원인인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과 병행돼야 한다. 그래야만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



근로시간 판단기준에 따른 Q&A



상황별 Q & A를 알아보기 전에 근로 시간의 종류와 운영기준을 살펴보세요.

근로 시간의 종류와 KT 운영기준

구분	내용	KT 운영기준
기준근로	일 8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 (휴게시간 제외)	주 5일, 40시간
연장근로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주 12시간, 월 24시간 한도 운용
휴일근로	일요 공휴일 근로자의 날(5.1) 창립기념일(6.1) 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운용 ※ 사전 승인 필수
야간근로	22:00 ~ 다음날 06:00 사이의 근로	



접대(거래처 등 외부)

거래처와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회식이나 부서장과 동행하여 휴일 접대를 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휴일근로를 신청해야 하나요?



비용을 각자 부담하더라도 부서장의 승인이 있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며, 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휴일 접대를 한 경우, 접대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휴일근로를 신청해야 합니다.



회식 부서 성과달성 발표 후, 축하 회식을 진행했다면 근로시간 인정이 되나요?

성과 발표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만, 이후 회식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참석자에게 성과발표 시간에 대한 사전 계획 공지가 필요합니다.



부서 회식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부서회식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법인카드 지출전표 적요 기재 시 사기진작 또는 단합을 위한 회식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워크숍·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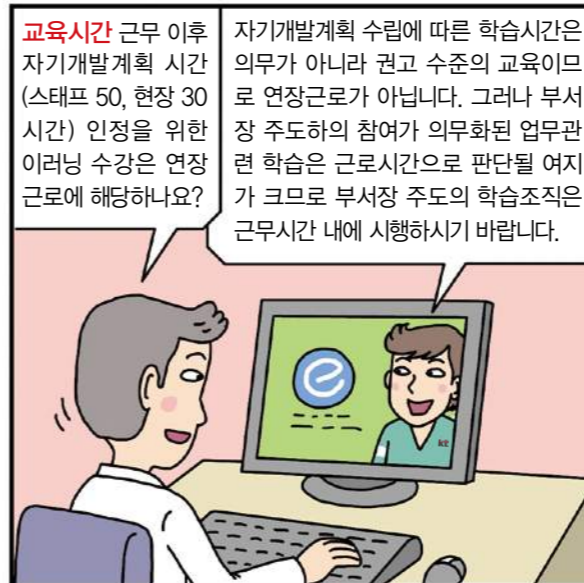
1등 워크숍 또는 1등 Teaming으로 팀 워크숍을 진행한 경우 근로시간인가요?

1등 워크숍은 집중 토론을 통해 최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되며(EFT, 과제 오너, 토론자 전원), 팀 워크숍 프로그램 중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시간(성과 향상을 위한 팀별 토론 및 과제 정의서 작성 등)이 있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순수 단합 및 팀워크 향상 프로그램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음).



사내 주요 세미나에 신청하여 참석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본인의 희망으로 참석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단, 업무관련으로 부서장이 참석을 지시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교육시간 근무 이후 자기개발계획 시간 (스태프 50, 현장 30시간) 인정을 위한 이러닝 수강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나요?

자기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학습시간은 의무가 아니라 권고 수준의 교육이므로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서장 주도하의 참여가 의무화된 업무관련 학습은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므로 부서장 주도의 학습조직은 근무시간 내에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장시간 KT원주연수원 교육(월 10시~수 16시) 출장으로 근무지 부산에서 4시간이 소요되어 월요일 06시에 부산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런 경우 월요일(입소일)과 수요일(퇴소일)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입소·퇴소일) 왕복 이동으로 소요된 시간 대해서는 연장근로를 신청하시고, 소정근로와 연장근로가 모두 포함된 것이 근로시간입니다.

※ 근로시간 산정 시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은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



긴급출동 06시 긴급출동으로 현장에 출동하여 조치 후 08시 30분에 출근한 경우에 복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 장애 발생으로 인한 긴급출동이므로 2시간 30분은 긴급출동으로 처리합니다(NMS에는 긴급출동 처리, ERP 복무통합관리에는 연장근로[긴급출동] 체크 입력). 08:30~09:00 사이는 실제에 맞게 업무시작 시간(kate)으로 기록.



사전에 계획된 야간작업도 긴급출동에 해당되는지요?

답: 장애 발생으로 인한 긴급출동 작업이 아니므로 긴급출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특별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야간근로 시간(22:00~익일06:00)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수당을 지급합니다(ERP 복무통합관리에서 연장근로[긴급출동체크] 입력).



현장 작업 후 사무실로 복귀 중, 17시 30분경 시스템에 의한 출동명령은?

답: 출동명령이 발생한 시간이 업무시간 내에 있거나 또는 정규 업무시간의 연장에 해당하므로 18시 이후의 작업은 연장근로를 신청해야 합니다.

K T T R A D E U N I O N N E W S

KT복지관(iBene) 사이트 개편에 따른 복지(포인트)카드 사용안내



KT 임직원의 혜택을 대폭 강화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KT복지관(iBene.co.kr/kt)이 새단장을 준비하고 있다. 시스템 이관 작업으로 인해 복지카드 포인트 사용이 일정기간 제한되므로 새롭게 오픈하는 복지관에서 차후 본인인증을 통해 이용해야 한다.

- 포인트 사용마감 : 2018. 8.21(화)
 - 복지포인트 차감반영 일시중단 : 2018. 8.22(수) ~ 9. 9(일)
 - 해당기간 복지카드 사용시 일부 개인결제계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카드사용 지양
- 포인트 사용개시 : 2018. 9.10(월) (단, 신규 복지관에서 본인인증을 한 경우만 가능)
 - 신규 복지관 본인인증 기간 : 2018. 9. 1(토) ~ 9. 9(일)
 - 향후 복지포인트 부여 및 사용을 위해 기간 중 반드시 본인인증 완료 필요
 - 신규 복지관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드시 최초 1회 본인인증 후 이용가능
 - 본인인증 완료 시 포인트 사용중단 기간의 사용내역을 자동으로 소급 차감
- 신규 복지관 오픈시점 : 2018년 9월 10일(월)
 - KT복지관 로그인 계정(ID)은 사원번호로 통합
 - ※ 세부사항은 자료실-[문서/정책] 참고

2018년도 단체교섭 노사합의에 따른 회사주식 지급

2018년도 단체교섭 노사합의의 결과에 따라 경영 성과에 기여한 노고 격려와 종사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회사 주식을 지급한다.

- 지급대상 : 합의일(2018.5.25) 기준 재직 중 직원
 - 상무보, SM, 전문경력직, 청원경찰 포함(임원 제외)
- 지급수량 : 1인당 36주
 - 주식 지급(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을 위한 이사회 결의 (2018.8.2) 전일의 증가(28,350원) 적용
 -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간 매도 제한 조건
- 지급날짜 : 2018.9.21(금)
- 지급계좌 : 위탁금융기관(미래에셋대우) 통해 일괄 개설된 개인계좌
- 향후일정
 - 계좌 일괄개설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Kate > 전자서명) : ~ 2018.08.22
 - 제공정보 : 주민등록번호, 성명, 휴대폰번호, 사원번호, e-Mail, 직장주소
 - 개인별 계좌개설 동의(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 ~ 9.12
 - 개인별 계좌개설 및 주식이체 : ~ 9.21
 - 계좌번호는 ERP > HR > 개인업무 > 급여 > 계좌번호관리에서 제공 예정
 - ※ 세부일정 및 방법 추후 별도 공지 예정

2018 하반기 초등자녀 화상영어교육 시행



KT직원 초등자녀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하반기 화상영어 교육프로그램이 시행된다.

- 선정대상 : 임직원 자녀 중 초등학교 4·5·6학년 각 70명(총 210명)
 - 단, 부부사원은 1명만 신청가능
 - 해당자녀가 다수일 경우에도 1자녀만 신청가능
 - 초등영어교육 기 선정자는 신청불가
 - 교육지원비용 소득세 과세
- 교육기간 : 2018년 9월 ~ 2019년 2월 (6개월간)
- 제공 콘텐츠
 - Rhythm & Beat 교재 및 원어민 화상영어
 - 자주 쓰이는 문장의 반복 및 문법 시퀀스의 자연스러운 습득
 - 화상 프로그램을 이용, 수준별 학습 및 실생활 적용가능 문장 학습
 - Writing 첨삭(주 1회), Junior TOEIC Test(격월)
 - 화상 영어학습을 통해 익힌 내용에 대해 개인별 Writing 첨삭 지도
 - Junior TOEIC Test를 통한 개인별 학습정도 및 성취도 확인

제5차 산하조직대표자 회의 개최 C/Sales직 G직 전환, Customer부문 조직개편 계획 등 설명



KT노동조합은 8월 17일 오전 11시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제5차 산하조직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목적사항은 △ Customer부문 조직개편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었으며, 세부 사항은 8월 20일(월) 발표했다.

한편, 대표자 회의는 '4.8 노사합의 손배소송 대법원 확정 판결'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김해관 위원장의 사과문 발표 및 각 지부별 대자보 제작·배포 계획을 공유하고 실행키로 했다. 이어 하반기 노동조합 주요 행사 및 조직 일정을 공유하고 마쳤다.

2018 하반기 신입 조합원 특강 개최 노동조합 조직 및 역할과 복지제도 등 소개



KT노동조합은 7월 25일(수) KT그룹인력개발원에서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189명의 2018년도 하반기 신입 조합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신입 조합원 특강은 ▲노동조합의 역할 ▲KT노동조합 구성과 조직 소개 ▲KT 복지제도 설명 ▲상조지원 서비스인 (썬)다운플랜 안내 등으로 진행했다. 강사로 나선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은 노동조합의 역사적 흐름을 상세히 설명하고 일상 조합활동 등 노동조합의 주요활동을 소개했다.

김해관 위원장은 신입 조합원을 환영하며 "KT 노동조합은 조합원 중심의 노동조합 건설을 기치로, 대내외적인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복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으므로 금강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주문했다.

2018년 자택대기 운영관련 노사합동 실태조사

노동조합과 회사는 7월 18일(수)부터 오는 20일(금)까지 3일간 2018년 '자택대기' 운영관련 노사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자택대기는 KT의 복무규정 및 단체협약에는 없는 제도로 노동조합이 자택대기 폐지를 요구, 이에 회사는 자택대기 방지 방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노동조합은 KT 현장의 오랜 관행으로 여겨진 자택대기가 아직 일부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바, 이의 근절을 위해 당분간 상시적인 현황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KT노동조합 동우회 개소식 개최

김해관 위원장, 동우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개소식 참석

KT노동조합 동우회가 7월 17일(화) 17:00 KT 중앙지사서 신촌지사 건물로 사무실 이전에 따른 개소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호선 회장 (KT노동조합 6대 위원장), 박홍식 고문, 김영희·김정순 부회장, 김순남 감사, 류성춘 사무총장 등 임원과 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현 노동조합에서는 김해관 위원장

과 이희창 강북지방본부·한창성 강남지방본부 위원장 등이 참석해서 개소식을 축하했다.

김호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KT노조 동우회가 을지로에서 신촌으로 이전을 하면서 문화의 거리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한 뒤 “항상 건강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회원 상호간 공감과 소통을 통해 노동조합과 회사에 기여하는 물론 사회적으로 뜻 깊은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해관 위원장은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하면서 “선배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항상 마음은 함께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념행사는 복날을 맞아 보양식을 먹고 훈훈한 정을 나누며 2시간여 진행되었다. KT노동조합 동우회는 전지 노동조합 간부 모임이며 약 1만여명의 회원대상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9 to 6’ 노사합동 실태조사 실시 근무문화 혁신 캠페인 철저이행 점검

노동조합과 회사는 7월 16(월)일부터 17일(화)까지 양일 간 ‘9to6’ 관련 노사합동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제대로 일하고 제때 쉬는 근무문화혁신을 통해 조합원 개인의 자기계발과 일 가정의 원활한 양립을 위한 노사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미이행 사례가 있는지 등의 운영현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실태조사에 나선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은 이메일 점검, 연장근로 신청자료, 유연근무신청자료, 출입 등의 자료 중 8시 30분 이전 자료와 6시 30분 이후 자료를 기준으로 부정적 사례가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 교통체증, 자녀 통학 문제로 조기 출근하는 경우가 파악되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6시 20분에 건물 전체 소등을 하는 등 대체적으로 ‘9to6’ 문화가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은 이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협의를 통해 방안을 모색하는 등 9to6 정착을 위해 꾸준히 점검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노동조합, 본사지방본부 소속 조합원과 간담회 개최



KT노동조합 최장복 조직실장을 비롯해 김인관 조직1국장은 7월 12일(목) 서울 우면동에 위치한 융합기술원, 인프라연구소, 서비스연구소, 네트워크연구기술지원단 지부를 차례로 방문, 조합원 간담회를 갖고 소통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본사지방본부 소속 조합원들은 젊은 세대를 고려한 카페테리아 복지의 조기도입, 대출제도 자격 완화 등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며 앞으로도 많은 소통의 시간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2018년 산업안전보건대회 개최 안전보건 강조를 통한 기업 내 안전문화 공감대 형성 도모



KT노동조합과 KT는 7월 12일(목)부터 13일(금)까지 양일간 도고수련관 대강당에서 2018년 산업안전보건대회를 진행했다. 이는 2017년 산업재해 50% 감소 달성을 위한 담당자들의 실천의지를 결의하고 노사간 안전보건 강조행사를 통한 기업 내 안전문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노동조합의 김배정 산업안전국장과 현장 지부장, 지역본부 담당자 등 195명이 참여한 이번 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상반기 안전활동 성과분석을 공유하고 각 조별로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토론회를 가졌다.

한편, 노사는 향후에도 재해감소를 위해 다각도의 안전, 보건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실질적인 안전교육 실시로 안전사고에 대한 의식고취와 재해관리시스템 준비를 지속해 갈 계획이다.

KT UCC, UN SDGs 기업이행상 수상 노사공동 나눔협약체, 지속가능개발목표 우수 모델로 평가 받아

KT와 KT노동조합은 7월 11일(수)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유엔 고위급정치포럼(UN HLPF, UN High-Level Political Forum) 한국 기념식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기업이행상을 수상했다. 유엔 고위급정치포럼(UN HLPF)은 매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



는 지속가능개발 이행점검을 위한 국제포럼으로, KT노사의 이번 수상은 UCC 활동이 UN SDGs의 우수 모델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20개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UCC는 KT노사의 주도로 2011년 창립됐으며, 국내뿐 아니라 베트남 등 동남아 소외계층 대상으로 참여 기업별 사업 특성에 맞춰 통신, 환경,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5차 중앙상무집행회의 개최 노동조합 직원 임금인상의 건 심의·의결



KT노동조합은 7월 10일(화) 오전 9시부터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2018년 제5차 중앙상무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직원 임금인상의 건을 상정하고 이를 심의·의결했다.

노동조합은 지난 3월 개최한 2018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과 노동조합 직원간 간담회와 2018년 3월 16일 대전에서 개최한 노동조합 직원 회의에서 2018년 노동조합 직원의 임금은 KT 노동조합과 ㈜케이티 간 2018년 단체교섭에서 결정한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직원의 임금은 2018년 KT와 KT노동조합 간 합의된 2%를 인상하고 노동조합직원들의 동기부여와 사기진작을 위해 일시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김해관 위원장 제주지역 현장순회 “조합원의 솔직한 심정과 고충 듣기 위해 실 틈 없이 현장 찾겠다”



김해관 위원장은 7월 4일(수) 오전부터 제주고객본부, 제주, 네트워크지부를 차례로 방문, 조합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2018 단체교섭의 경과와 이후 주요 활동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위원장은 먼저 제주지방본부 상집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주본부는 지리적 특성 상 조합원들의 관심사 및 건의사항 등을 수합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말한 뒤 “상집간부들께서 조합원들의 요구나 애로사항이 뭔지 세심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제주고객본부 조합원들을 만나 커피를 전달하며 “임기 내에 252개 지부 전체를 찾아가 조합원의 솔직한 심정과 고충 들을 것”이라고 약속한 뒤 “앞으로도 현장순회를 강화해 소통의 장을 넓이는 한편 조합원만 보고 오직 한 길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 복지(기여)포인트 2차 지급

- 부여포인트 : 기여포인트 40만 point
- 사용기한 : 부여일(2018.07.06) 이후 3년 이내 사용가능(미사용 시 소멸)
- 복지포인트 부여내역 확인방법
 - 개인형 복지카드 → <http://ibene.co.kr/kt>
 - 법인형 복지카드 → <http://wfc.wooribank.com>
- ※ 카드 분실 및 파손 등에 의해 재발급 받은 경우는 기존/신규 포인트는 모두 주민번호 기준으로 자동 연동되므로 별도 등록작업 필요 없이 즉시 사용가능
- ※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처 : ☎ 031-727-4037

Voices of Readers

고 객 의 소 리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은 더 좋은 소식지를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판]을 읽은 느낌과 생각을 퀴즈 정답과 함께 메일로 보내주세요.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수도권강북고객본부 구리지사 영업부 C&R팀 김기수
봄에 봄 속으로, 여름에 여름 속으로 들어가야 하듯 '판'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현장의 이야기와 노동이슈들을 잘 그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 단체교섭의 결실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집행부가 흘린 땀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구고객본부 강북무선운용센터 충청엔지니어링팀 김재성
시간을 두고 자세히 보니 유익한 정보들로 가득 차 있어서 놀랐습니다. 특히, 제 관심분야인 5G 주파수 경매에 대한 내용은 신문이나 인터넷 자료보다 자세히 정리되어 있어 메모까지 해 두었습니다. 좋은 소식 알려주시느라 늘 고생 많으십니다.

대구본부 cs지원부 cs지원2팀 황순희
단체교섭의 시작에서 결과까지의 모습 등 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보를 더욱 세심히 알 수 있었습니다. 조합에서 하고 있는 일들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 좋습니다.

수도권강북고객본부 노원지사 도봉지점CM팀 민경환
중앙, 지방, 지부까지 일치 단결된 행동으로 임하고, 끈기 있는 협상으로 '정당한 투쟁은 기필코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우리 모두의 의미 있는 2018년 투쟁이었습니다. 조합과 조합원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전남고객본부 CS담당 CS지원부 CS지원3팀 문정기
소식지 판을 통해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모습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강북고객본부 고양지사 영업부 영업1팀 이창주
2018 단체교섭의 성과는 위원장님의 결의와 행동, KT 노동조합 노력의 결실이라고 봅니다. 소식지를 통해 임단협 기간의 활동 사진을 보니 가슴이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지 '판'을 기대합니다.

충남고객본부 대전지사 Biz지원팀 민경식
소식지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현실감 있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안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제, 5G 주파수 경매 등을 깊이 있게 다뤄주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부산네트워크운용본부 경남유선운용센터 마산운용팀 박정영
'이번에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진행된 2018 단체교섭의 진행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을 이해하게 됐고, 새로운 이슈거리인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정리돼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남고객본부 북광주지사 영업부 C&R팀 손성오
조합원들의 건강증진과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의료지원 행사 중 안과의 경우 서울, 인천, 부산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기타 지역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면 더 많은 조합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네트워크운용본부 강서무선운용센터 HLR지능망팀 황병훈
단체교섭 시작에서 타결까지의 과정을 보며 여러 사람들의 노력과 끈기가 이루어낸 결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KTTU QUIZ

									세로2
	세로1								
가로1									

모든 정답은 이달 소식지 안에 있어요~
정답과 함께 소식지 '판'을 읽고 난 소감을 메일로 함께 보내주시면 선별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 mabin@kt.com (김민수 편집국장)

- 가로 1**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지난 6월 효력이 상실된 이 제도는? (20페이지 참고)
- 세로 1** 2018년 5월 29일부터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의 의학적 시술을 위해 개인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근로자들을 위해 ○○○○○가 신설됐다. (7페이지 참고)
- 세로 2** 근로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재량근로제, 보상휴가제 등이 있다. (26페이지 참고)

※ 보내주실 때 퀴즈 가로 세로를 모두 적어 주시고, 반드시 이름/소속/연락처/주소를 함께 기재해 주셔야 상품권이 배송됩니다.

다운플랜



01

(주)다운플랜은 KT노동조합이 자본금 100% 출자하여 직접 운영하는 회사

02

(주)다운플랜은 KT그룹 임직원 애경사 복지를 지원하는 법인

03

(주)다운플랜 가입회원은 상조와 웨딩 서비스 중 선택하여 사용 가능

04

장례시 장제용품, 근조화환, 근조기 위탁 운영
(지원되는 KT그룹사에 한해 지급)

05

결혼시 축하화환 위탁 운영
(지원되는 KT그룹사에 한해 지급)

06

선수금(미리 받은 회비) 보존의 안정성
“다나상조, 다운플랜, 데케이에다함상조 등 총 17개 시는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넘는 회사로 조사됐다. 재정건전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다운플랜은 KT노동조합에서 그룹사 전 임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고품격 장례/웨딩 서비스입니다.

다운플랜 가입문의 | 1577-1555 www.daonplan.com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